

현장 스님 구법정신... 戒定慧 삼학을 닦자

(계정혜)

조계사 관음재일 법회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 삼장 법사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다. 현장 스님은 세 명의 제자 오공·오정·저팔계와 함께 인도 나란다 학교로 구법의 길을 떠난다. 이 여정 중 겪은 고난과 역경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환란으로 상징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2일 조계사 관음재일 법회에서 현장 스님의 구법 여정에 비취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설법했다. 정념 스님은 “현장 스님은 고난과 역경때 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지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 구법 정신을 본받아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길흉화복은 자신의 일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을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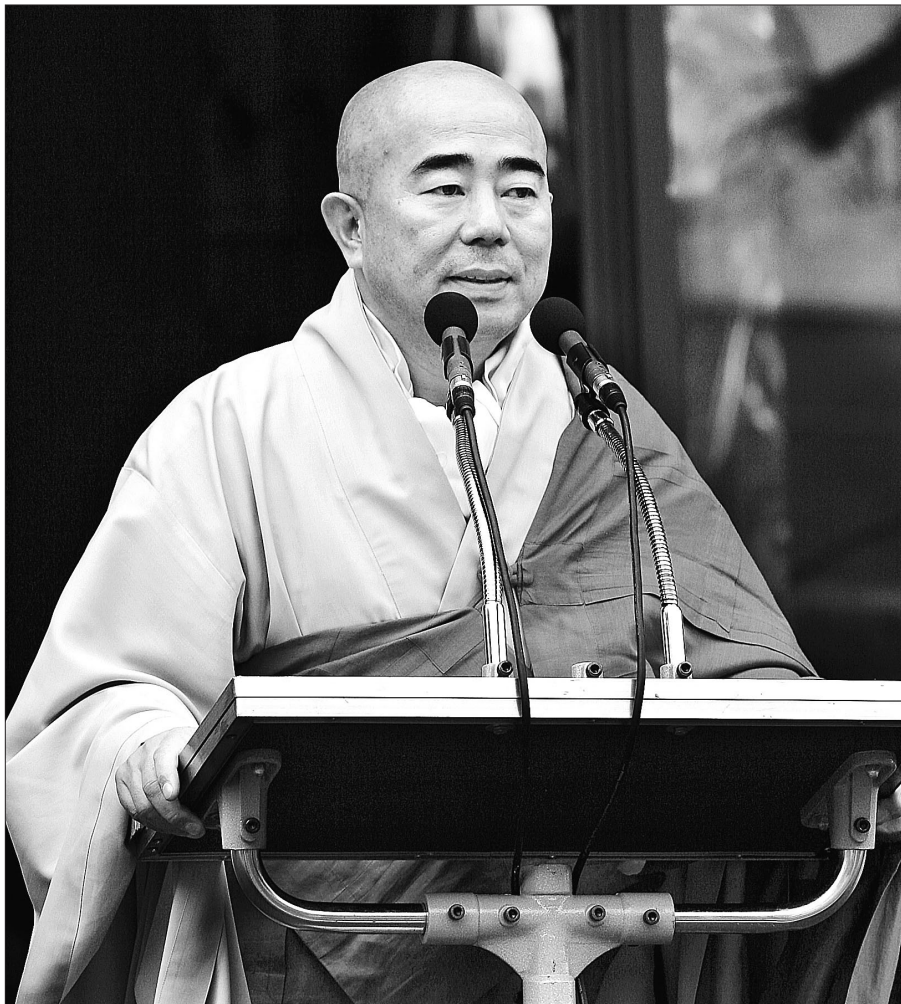
지혜지력으로 환란 헤쳐 나가자

저는 여태까지 두 차례 실크로드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굉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교통망과 숙박, 질서가 상당부분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실크로드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가 보니 몇 년 전 갔을 때 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발전의 원동력은 황하문명권의 발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페르시아, 인도 문화와의 교류와 서역 문물을 연결해준 실크로드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진·한 나라 때 이 실크로드를 개척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문화가 개선되고 삶이 풍족해지면 가장 먼저 발전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잉여생산물들이 많아지면 일을 적게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풍요로울 수 있는 기술을 증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에 중국이 문화적으로도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유기에 나오는 스님입니다. 오늘 현장 스님의 구법 여행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장 스님은 법을 구하기 위해 서쪽 인도로 떠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형님과 함께 출가한 현장 스님은 매우 천재적인 두뇌에 출중한 외모를 갖춰 어릴 때부터 이미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현장 스님의 능력을 인정해 나라의 인재로 키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 나란다 대학을 가길 원했습니다. 인도는 부처님께서 전법하고 해탈하신 곳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이곳을 참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유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묻어나 있어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영동한 불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정

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 바른 불자가 될 수 있었지요. 현장 스님은 이러한 원력을 세우고 구법을 위해 나란다 학교를 가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왕실의 허가가 있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현장 스님이 나라에 남아 큰 법을 전하길 원하여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현장 스님은 실크로드를 따라 물레 구법의 길에 나섭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실크로드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 도시 곽성(郭盛)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황무지 속에 유적이지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현장법사가 머물렀던 법당터가 남아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곳에 이르니 당시 그 지방 임금이 불법을 숭상하던 분이어서 현장 스님을 그 나라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임금이 현장 스님의 구법 여정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아 누이동생과 결혼을 시켜 나라의 큰 스승으로 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스님은 도저히 이곳에 머무를 수 없던 구법의 길을 떠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현장 스님의 큰 뜻으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제자 네 명을 동행하게 하여 나란다 대학에 이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때 제자 네 명의 이름이 바로 큰 제자 오공, 둘째 제자 오정, 셋째 제자 오정, 넷째 제자 오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 중 제자 두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떨어지는 얼음에 맞아서 죽고, 또 한 명은 눈 속에서 동사하여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제자는 오공과 오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팔계는 중간에 합류한 제자입니다. 팔계라는 이름의 뜻은 여덟 가지의 음식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저팔계는 원래 사람을 잡아먹고 해치기도 하는 돼지였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금하라는 뜻에서 현장 스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오정은 셋째제자입니다. 사오정은 얼굴 옆에는 아홉 개의 해골을 달고 다니지요. 그 해골 중 하나는 삼장법사의 전생 해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오정이 전생



정념 스님은 ... 1980년 만화 화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오대산 상원사 주지와 나눈 집 이사,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 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월정사 주지로 재임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벌여온 정념 스님은 또한 2012년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현장 스님 구법정신 본받아야

환란마다 관세음보살 지혜지력 따를 것

관세음보살 정근 모든 걱정 끊어내

공(空)한 자리에 지혜의 빛 구현

에 현장 스님을 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이생에 사오정을 교화시켜 삼장법사 구법의 길을 잘 인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장 스님과 세 명의 제자는 힘든 역경을 헤치고 나란다 대학에 이릅니다. 현장 스님은 나란다 대학에서 거의 10년 이상 머무르며 불법을 수학과 인도 여행과 답사를 마칩니다. 이때 현장 스님은 제자를 함께 보내고 곽성 곽성 임금과 1년 동안 불법을 강의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려고 했으나 이미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서유기는 현장 스님의 고난과 역경의 구법기행을 담은 것입니다. 현장 스님과 제자들은 81가지 난을 겪는데 이 때 겪는 무수한 일들을 두고 우리 인간들이 겪는 여러 가지 환란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

다. 이 환란마다 관세음보살은 현장 스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가피를 베풀어 줍니다. 관세음보살이 현장 스님을 보호해 주었듯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일체 모든 일들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지력입니다. 정말 진정한 불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계정혜(戒定慧, 깨달음에 이르려는 자가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수행) 삼학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 스님의 구법기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말할 때 무엇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 중 하나는 수명장수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덕스럽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사후에 연화장세계로 잘 갈 수 있는 것이 오복입니다. 이 오복을 위해 인간 사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처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네팔 지진, 세월호 사건 등 인생사에 예

기치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전해도 마음의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은 더 여유로웠던 과거가 더 행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백년의 사리가 하룻밤 꿈속을 불과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아온 이 인생이 긴긴 산과 같고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만 돌아보면 별 것이 없습니다. 임금 노릇을 해봐도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며 천하를 놓고 바둑을 두듯 아옹다옹 살아도 결국 바둑 한 판일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닭장에 든 닭은 당장 제때 먹을 것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 운명인지 모릅니다. 반면 들판에 노는 학은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만 천지가 자유롭습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따질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물질적으로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번뇌가 더 없어진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복을 아무리 밖에서 구해도 삶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일심에 따라 육도 펼쳐진다

오복의 반대는 육극(六極)입니다. 육극이란 여섯 가지의 큰 불길(不吉)로 흉단절, 질(疾), 우(憂), 빈(貧), 약(惡), 약(弱), 인체(人)의 중요한 여섯 곳 등을 말합니다. 흉단절은 번사(變死)나 요사(夭死)를 비롯해 장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이 꼭 행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대왕, 예수, 율곡이이 등 전 세계적 위인들 중 요절하신 분들은 천하의 할 일을 모두 하고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깨어있는 마음을 내어한다면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것은 망상에 휩싸여 번죽 끊듯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더라도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닌 병고에 휩싸여 수명만 지속한다면 이것은 또한 박복한 것입니다. 육극 중 우(憂)는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근심 속에 삽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농사짓는 일에 그쳤으나 요즘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갖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이에 현대인들은 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민이 지나치면 과민입니다. 이 끝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이 오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걱정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민해지면 행복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쉽 것이 들고 돌아가는 격정의 수레바퀴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아가고 고민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민한다

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념을 잘 살펴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업장이 모두 소멸하고 좋은 인연과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도리어 무심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육극의 하나입니다. 약하게 사는 것, 즉 마음에 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복입니다. 성격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 하지만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을 바꿔서 업장을 녹여야 합니다. 이를 잘하여 환골탈태하면 번뇌를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지극한 원력과 기도지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이에게 좋은 파장을 주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덕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인내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약하게 태어난 것도 육극의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복입니다. 하지만 완력이 세다고 강한 것은 아닙니다. 천하장사도 힘은 좋아도 무병장수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력이 굳건하고 건강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병은 전생 업연에 이어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병 또한 잔잔한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길흉화복을 만들어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일심(一心)에서 육도가 펼쳐집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며 아귀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업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은 그 자리가 없습니다.

서유기 현장 스님 제자 '오공'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엇이든 몸과 마음을 비우고 그 본래 자리를 찾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연은 원래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니 이 실체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빈자리에 지혜의 빛이 맑음의 자리를 구현시켜 지혜와 자비가 구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현장 스님의 구법 정신을 본받아 일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헤칠 수 있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지력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흉화복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구할 것이 정근 하는 한 마음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부처님 되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원용종 중앙총회 해산 및 체탈도첩 대상자 공고

대한불교 원용종은 종권 운영상 중앙 총의회를 현 총무원장이 종정 직무 대행으로 불기 2559 (2015)년 6월 9일부터 해산한다.

체탈도첩 대상자

■ 대천 (임학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궁정사

위 체탈도첩 대상자는

종정예하가 특허 받은 종단마크(별첨1)를 위조모방(별첨2) 하는 등 전체 문도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일부 일공 문도회 비상 소집령내려 총무원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정예하의 법호인 일공 공자를 일명 (일문회)라 칭하는 (별첨3) 유인물과 같이 합부로 변경하는 모욕적인 행위와 열반이후 장례에 관하여 외부에서 대중모임을 선동하여 종단 총무원장을 음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제7조 5항 종정 또는 중요 교직자에 모욕적 행위가 있는 자,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제9항에 해당 체탈 도첩 대상이다.

■ 해운 (백민현)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타린

위 체탈도첩 대상자는

예전 2006년 6월 29일 부산 총무원장 소임을 보며 시문서 위조로 종단 해중 행위를 하여 소임 면직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종정예하의 사면으로 복권되어 종단의 총책을 맡고있는 소임자가 자중하지 않고 총무원장을 모욕하는 (종법3장 제7조 5항)행위를 하며 기타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제9항)

■ 평신 (이상춘) 경기도 부천시 무애암

위 대상자는 본 종단의 승정원장으로서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여 종도에게 귀감이 되어야하는 직책으로서 본종의 중풍 거양(宗風擧揚)의 표상으로 종단의 신성과 존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 (종헌 15조)를 갖추신 종정예하를 모욕하는 행위(종법3장 징계법 제7조 5항과 9항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을 하는행위에 적용되므로 종헌 종법에 의거 체탈도첩에 처 합니다.

이에 본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의하여 불법 모임을 주동한 해당자 모두에게 보직 해임하는 등 대한불교 원용종 종헌종법 제3장 7조 5항과 9항에 의거 회의장소에서 본인들에게 선포하고 종도에게 알리며 선포문을 배포하여주고 체탈도첩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체탈도첩 대상자는

종법 성별 법 제 3장 징계 제 6조

1항

• 승적을 삭제하고 도첩 및 승려증을 회수한다. 체탈 도첩을 받은 자는 복적(復籍)이나 재 득도(再 得度)를 할 수 없다.

3항

• 법계원부를 삭제하고 법계증서를 회수한다.

불기 2559년(2015) 6월 9일

대한불교 원용종 총무원장 裴 鎮 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실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각석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 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 이 방사되어 원적외선"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썩뎠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배출효과

스트레스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효과, 소화불량, 속취, 체질 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 시키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품온열벨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후 : 일주일 정도는 평상시 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문의전화_02.723.0099 입금계좌_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께서는 보상판매를(신제품교환) 받아 사용하세요."